

로 정하는 언어정책기관이 각각 달라서), 전반적인 것의 이질화 요인으로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공용어를 정하는 기준이며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언어관, 언어정책기관, 연구태도 등이다. 남북언어의 차이를 유발하는 데 있어 전자가 절대적이라면 후자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공용어를 정하는 기준의 세 요소(시간, 공간, 인간) 가운데서 시간의 측면에서 남북한 공히 현대를 기준한 것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공간의 측면에서 남한은 서울을 기준하는데 북한은 평양을 기준하고 있고, 인간의 측면에서 남한은 교양있는 사람을 기준하는데 북한은 근로인민대중을 기준하고 있어 표준어로 인정되는 어휘가 달라진다.

언어정책의 이질화현상 불리

언어관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서 도구관(언어가 사고의 도구), 일체관(언어가 사고의 기관), 형성관(언어가 사고의 근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집단의 언어정책과 언어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남한은 사회 전체에 내재한 특정한 언어관이 드러나지 않지만 북한은 도구관이 확연히 드러난다. 따라서, 남한은 언어에 대한 인위적인 개혁의지가 약한데 반해 북한은 언어에 대해 관점이 철저하여 이의 개혁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언어정책기관으로 남한에는 국어연구원이 있고 북한에는 언어학연구소가 있지만 이들의 역사와 위상과 역할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북한은 이른 시기부터 강력한 언어정책기관에 의하여 실제적인 언어의 규범화를 꾀해 왔고 이의 실행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반면 남한은 그 설립 역사의 일천함과 추진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언어정책이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는 언어에 대한 사회적 통제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온다.

언어연구를 이론면과 응용면으로 나눌 때 남한은 이론면이 중심이고 북한은 응용면이 중심이다. 남한은 언어현상을 관찰하여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의 모형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북한은 언어분야에 나타나는 모든 이론 실천적 문제에 뚜렷한 해명을 주는 목적지향적인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응용면과 관계없이 이론면이 존재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응용면을 전제할 때 이론

면의 성립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인 언어생활의 규범화에 들어는 노력에 차이가 있다.

우리는 앞에서 남북언어 이질화의 요인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남북언어 이질화 요인을 없애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이 요인들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남북의 체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 왜냐면, 통일국가만 이루어진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의 남북언어 이질화 극복방안은 어찌보면 통일 후의 언어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다. 그러면, 그 준비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언어에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 조성이다. 북한언어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경상도나 전라도 방언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나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국민들이 북한언어자료를 최대한 쉽게 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출판물이나 방송을 자유롭게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야 하며, 각 대학에 북한언어연구강좌를 개설하여 북한언어에 대한 낯선 느낌을 없애야 한다. 북한언어에 관련된 자료(서사자료, 영상자료 등)만은 국립 국어연구원에서 모두 확보하고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국어학자들의 교류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만나기 어려운 현실정에서 국어학자들만이라도 만나서 서로의 연구정보를 교환하고 언어문제에 대하여 토의를 하는 국어학자회의를 상설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는 남북의 언어정책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반세기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언어문제에 관한 한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다. 남북이 각각 일반적으로 민족어를 결코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며 이질화의 문제는 체제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의내용이 무엇이어서 하며 어떠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국어학자들의 협의에 맡길 일이다.

바른글방이 이사했습니다

**<바른글방>이
신촌으로
이사했습니다.**

종로에 있던 바른글방이
신촌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나름대로 책 만드는 일에
이끌이 났다고 감히 자부하기도 하는
스물일곱 명 바른글방 식구들이지만
신촌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새로 갖는 각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바른글방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미필적 고의>
가 새로 탄생
합니다.**

그동안 바른글방에서 표지·일러스트 등
책의 모양대기를 주로 해오던 디자인 팀이
신촌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책을 꾸미는 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미필적 고의>라는 이름의 독립된 집단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넘치는 의욕과 풋풋한 개성으로
가장 큰 재산으로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를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 <바른글방>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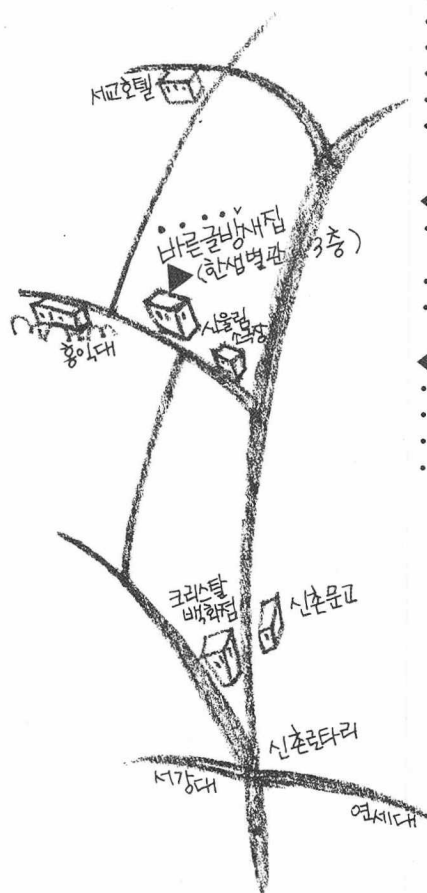
- 출판기획상담
- 단행본·잡지 등 기획출판 대행
- 윤문·교열·교정 대행
- 본문편집
- 단행본·아동물·참고서 등 전산조판
입·출력

◀ <바른글방>에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 완전편집 가능한 KCE 편집입력기
SUPER WRITER 15대
- 300LP 1대
- ECRM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 <미필적 고의>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표지·본문 등의 디자인
- 출판광고 디자인
- 일러스트
- 출판제작대행



출·판·전·문·집·단

**바른
글방**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9
한샘빌관 3층
전화 325-5366(대)
325-5363-5
팩시 325-5362